

# 광주·전남 출신 당선 안정권 5명...1번은 모두 과학기술인

## 여야 비례대표 명단 확정

새누리2·더민주 1·정의당 2명  
더민주 친문 인사들 대거 포진  
국민의당 박선숙·박주현 당선권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2일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지었다.

새누리당은 전날인 21일 비례대표 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날 각각 36명,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정의당도 1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0번까지, 더민주 15번까지, 국민의당은 6번까지, 정의당은 최대 5번까지 당선 안정권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민주·국민의당 비례대표 확정 = 더민주 23일 김중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확정했다. 1번 후보로는 박경미(여·50) 중앙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선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문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 36명을 발표했다.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친문 체제 구축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 김현권 경북 의성군 한우협회장(69), 문미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지원실장(77), 이철희



김중민 "대표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비대위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유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기획본부장(87), 제윤경 주빌리은행 대표(9)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권미혁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11), 이수현 전 6차회담 수석대표(15) 등도 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신용현(여·5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과 오세정(63)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비례대표 1, 2번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18명 명단을 확정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의 측근인 박선숙(여·55) 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천정배 공동대표측 박주현(여·52) 최고위원, 이상돈(64) 공동 선대위원장은

당선권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출신은 누구? = 여야가 확정된 비례대표 후보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이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은 새누리당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당 0명, 정의당 2명이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 7번에 광주 출신 신보라(여·33)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를 선정했다. 영암 출신인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63) 9단은 14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하다. '진돗개'라는 별명을 가진 진도 출신 허정무(61)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32번에 배치된 것도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에서 유일한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도 18대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해 201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19대 비례대표인 주영순 의원도 이번 총선에서는 무안·영암·신안 지역구로 출마해 새누리 비례대표의 지역구 당선 계보를 이을지 관심을 끈다.

아래 뒷발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는 이 지역 출신 당선권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선 안정권을 15번까지로 보는 더민주에서는 영암이 고향인 최윤정(66) 서강대 교수가 4번을 받았다. 최 교수는 김중민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김 대

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4번과 14번 심기준(강원도 원주)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15번 이수현(전북 김제) 전 6차 수석회담 대표를 빼면 모두 서울, 경기, 경남·북 출신이었다.

비례대표 의원 6명 이상을 노리는 국민의당은 당선 안정권에 광주·전남 출신이 아예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3번을 받은 박주현(52·여) 최고위원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천정배 공동대표계 사람이다.

정의당은 4~5번까지 당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완도 출신 추혜선(여·45) 당 언론개혁단장을 3번에, 해남 출신 윤소하(55) 전남도당 위원장을 4번에 배치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 총선 비례대표 상위권 명단 < 광주·전남 출신 >

순위	후보(연령·성별)	주요 경력
1	송희경(52·여)	전 KT 평창올림픽 지원사업단장
2	이종영(56·남)	전 육군대령
3	임이자(52·여)	한국노총 중앙여성위원장
4	문진국(67·남)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
5	최연혜(60·여)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6	김규환(59·남)	국가품질명장
7	신보라(33·여)	청년여어는미래 대표
8	김성태(61·남)	전 한국정보화진흥원장
9	전희경(40·여)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10	김종서(60·남)	여의도연구원 원장
11	김승희(62·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2	유민봉(58·남)	전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13	윤종필(62·여)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장
14	조훈현(63·남)	프로바둑기사
15	김순례(61·여)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16	강효상(55·남)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17	김현아(46·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8	김철수(72·남)	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
19	조명희(60·여)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20	김본수(58·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
21	하윤희(44·여)	새누리당정책위원
22	신원식(57·남)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3	김정주(58·여)	환경산업기술원본부장
24	임명배(50·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25	민경원(52·여)	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총장

순위	후보(연령·성별)	주요 경력
1	박경미(51·여)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	김중민(76·남)	당 비대위 대표
3	송옥주(56·여)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4	최운열(66·남)	전 서강대 부총장
5	이재정(42·여)	전 민변 사무차장
6	김현권(52·남)	전 의성군 한우협회장
7	문미옥(48·여)	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	이철희(50·남)	당 전략기획본부장
9	제윤경(45·여)	전 문재인후보 선대위원장
10	김성수(60·남)	전 목포 문화방송 사장
11	권미혁(57·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2	이용득(63·남)	전 당 최고위원
13	정춘숙(52·여)	전 한국여성연맹 상임대표
14	심기준(55·남)	전 강원도 정무특별보좌관
15	이수현(67·남)	전 6차회담 수석대표
16	정은혜(33·여)	전 당 부대변인
17	허윤정(47·여)	당 정책위 보건의복지 전문위원
18	이태수(57·남)	꽃동네대학교 교수
19	양정숙(51·여)	한국 여성변호사회 부회장
20	유영진(57·남)	전 부산시 약사회 회장

순위	후보(연령·성별)	주요 경력
1	신용현(55·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2	오세정(63·남)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3	박주현(52·여)	변호사
4	이상돈(64·남)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5	박선숙(55·여)	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6	채이배(41·남)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7	김수민(30·여)	브랜드호텔 대표
8	이태규(52·남)	당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9	김삼화(53·여)	변호사
10	김종로(65·남)	예비역 육군 준장

## 정의당

1	이정미(50·여)	정의당 부대표
2	김종대(50·남)	정의당 국방개혁기화단장
3	추혜선(46·여)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
4	윤소하(66·남)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5	김명미(51·여)	부산광역시당상임위원장

## 국민의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강형욱 공천

### 광주 동구청장 후보 김성환...경선 이의신청 모두 기각

국민의당은 4·13 총선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미발표된 본선 진출자들을 확정하고 지역구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우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후보로 강형욱 전 재정경제부 재정정책심의관을 공천했다. 이날 경선 발표 결과, 김선우·정병걸 예비후보에 승리한 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와 일합을 겨루게 됐다.

또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로는 김성환 예비후보가 공천됐다. 그는 이날 발표된 경선 결과, 오형근·안재혁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장을 받게 됐으며 더민주 흥진태 후보와 결전을 벌이게 됐다.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후보가 다시 경선을 지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여수시갑의 경우 경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경선 승자인 이용주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김경호·김영규 후보는 무소속 출마의 길이 열렸다.

고흥·보성·강진·장흥 경선에서 황주홍 의원에 밀려 낙선한 정치평론가 김철근 후보는 서울 구로갑에 단수공천됐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에 임동순 후보를, 안철수 대표 측 이수봉 후보와 신학용 의원 보좌관 출신 이도형 후보가 갈등

을 빚던 인천 계양갑에서는 이수봉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도형 후보 측은 경선 실시를 촉구하며 재심을 신청할지 고심 중이다.

경기도 용인정 김중희 후보는 더민주 표창원 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 국민의당 후보로 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 양천갑(심재용), 강북을(조구성), 종랑갑(민병욱),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김해창), 경기 용인정(김종희)은 경선지역에서 단수공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경기 광명갑에서는 재심 요구가 수용돼 여론조사 결과 기존 서현준 후보에서 양승필 후보로 교체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김경호(여수시갑), 홍기훈(나주·화순), 정용화·이건태(광주 서구갑), 서정성·정진욱(광주 동남 갑), 김유정(광주 북 갑)후보가 각각 제기했던 당내 경선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아울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상황 본부를 신설, 본부장에 공천 배제된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을 임명했다. 또 선대위 고문에는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도심을 넘어 아웃도어까지  
걸는 것 그 이상의 편안함, 메가웨이브

# MEGAWAVE

megawave.treksta.co.kr

제품문의 | 1599-0055  
대리점 개설문의 | 010-3582-5029 (박근우과장)

하이퍼폼 다른 밑창에 설계된 2개의 미드솔이 이지 모양의 발을 받쳐줍니다.

IST 자동차의 서스펜션처럼, 거친 길도 부드럽게 걷게 해줍니다.

네스핏 내 발 모양 그대로를 본딴 것 같이 편안합니다.

보아 신발끈을 한 손으로 딱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메가웨이브 신고  
"규슈 올레 여행"까지!

메가웨이브를 구매하시면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일본 규슈 올레 여행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 3월 25일(목) ~ 4월 17일(일)  
당첨자 발표 : 4월 18일(월) 개별 연락

메가웨이브 구매금액의 20% **닉워스 발수제 증정**